

# 올 1분기 3.3초에 한번 119전화벨 울렸다

## 소방청, 올해 1분기 현장소방활동 현황 발표

### 신고 233만3292건, 전년비 3.3% ↓ ...오접속 ↓

올해 1분기(1~3월) 119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신고가 233만3292건에 달했다. 3.3초에 한 번 꼴로 119전화벨이 울린 셈이다.

소방청은 2021년 1분기 현장소방활동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1분기 119종합상황실로 걸려 온 신고 건수는 233만3292건이었다. 하루 평균 2만5925건, 3.3초에 1건씩 접수된 것이다.

다만 1년 전(241만3771건)에 비해서는 3.3%(8만479건) 감소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현장출동(화재·구조·구급·대민출동)과 관련된 신고가 98만5635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76만8057건(33%), 무응답·오접속 57만9600건(25%)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응답·오접속 신고만 19.9%(14만4056건) 감소했다. 현장출동은 6.6%(6만622건),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0.4%(2955건) 각각 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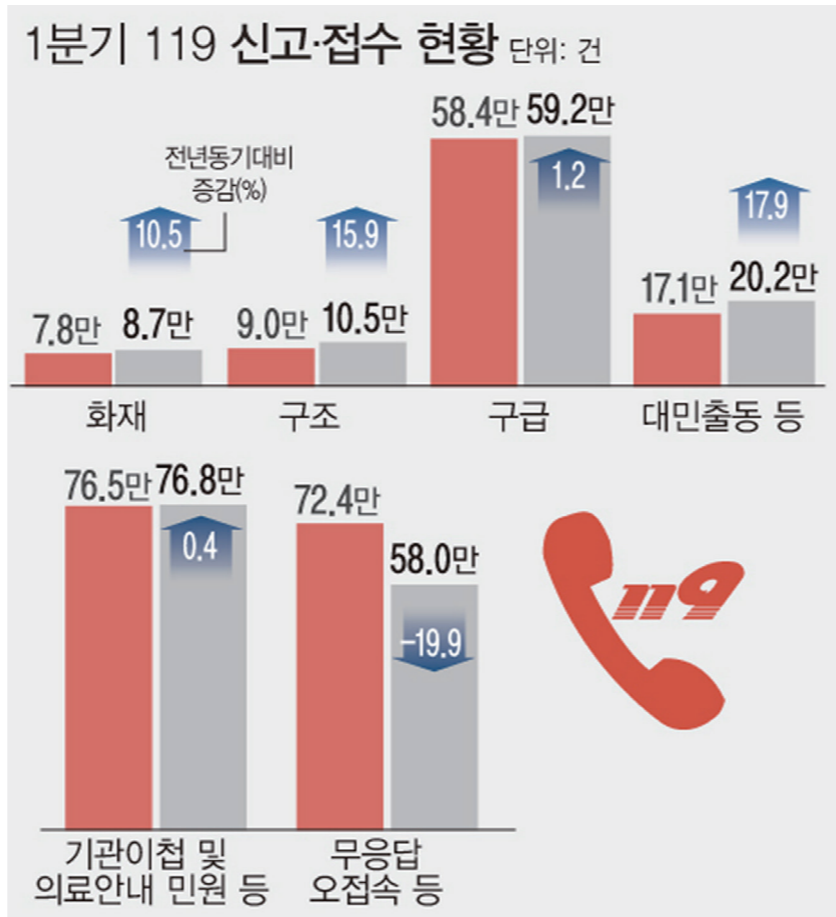
현장출동 관련 신고만 떼어보면 화재 8만6651건, 구조 10만4872건, 구급 59만1630건, 대민출동 20만2482건이었다. 1년 전보다는 각각 10.5%(8262건), 15.9%(1만4390건), 1.2%(7299건), 17.9%(3만671건) 증가했다.

전국 18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4만4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다음으로는 서울이 40만4005건으로 많았다. 인천(11만8195건)까지 합친 수도권 신고는 전체 신고의 41.5%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북 16만2802건, 충남 13만8074건, 경남 12만9512건, 전남 12만6516건, 대구 11만5746건, 전북 11만2022건, 대전 10만2740건, 충북 8만6128건, 강원 8만2842건, 광주 6만3822건, 울산 4만4874건, 창원 4만1086건, 제주 3만9720건, 세종 1만9558건 순이었다.

정병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 신고의 지역별·시기별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정책 수립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 동부소방, 신축 공동주택에서 현장적응훈련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오늘 신축 공동주택인 두산위브3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10개 동 900여 세대인 두산위브3차 아파트는 24층으로 올해 4월 16일 부터 입주 시작된다. 이날 훈련에는 현지 소방활동설비를 활용한 방수훈련, 고가 사다리차를 활용한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드론 사진·영상 촬영을 통한 드론 운용능력 강화와 함께 대규모 건물에 설치된 첨단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고층건축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내·외장재 설치사항 등 안전 관리 실태도 꼼꼼히 살폈다.

최정식 서장은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재난대응,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희기자

## 보성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5일 오후 2층 서장실에서 ‘20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대책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간담회를 추진, 경찰서장·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교통사망사고예방을 위해 21년 공동 추진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자, 이륜차 대상 교통안전 홍보 및 물품 지원 등 협업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고령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기 위한 형광지팡이를 지원해 주었다.

박임규 보성경찰서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형광지팡이는 관내 고령보행자 등에게 지급토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 순천시, 세금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의 응어리 풀어줬다

## 압류재산 권리분석·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4억원 징수

순천시가 지난해에 총 13명의 납세자로부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5건의 공매를 완료해 체납세금 4억 1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27년간 묵힌 한 시민의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압류 부동산에 세무서 등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었지만 순천시가 공매 배당금 전액을 지방세 체납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천시 징수공무원의 적극적인 실력과 납세자의 애항심 덕분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납세담보 제공자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세 등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선순위 압류권자가 매각 절차를 장기간 지연하여 20년 이상 체납자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순천시도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지만 선순위 채권 등이 과도하게 존재하여 공매 시 배분 금액이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공매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장 징수업무가 제한되면서 비대면 징수업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어 장기간 묵혀있던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체납자도 체납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일상 회복이 쉽지 않다는 민원을 가깝씩 제기하였다.

순천시는 납세자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납세담보’가 있는 재산은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실득한 끝에 납세담보를 제공받았다.

체납자 A는 1994년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방세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하였고, 소유 부동산 압류와 신용 정보 제공 등으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1994년도에 부과한 주민세

(종합소득세) 1천여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 A의 압류부동산을 납세 제공 협의 및 설정 등기 후 공매에 따른 매각으로 27년간 묵힌 체납세를 정리하였다.

체납자 B는 중기 펌프 카와 노래연 습장을 운영하였으나, IMF로 70억 부도를 맞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무단 전출 직권말소와 재등록을 6번이나 하는 등 일정한 거처 없이 건축현장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체납된 국세 수억원과 지방세 53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시는 수소문 끝에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B씨를 찾았고, B씨는 체납으로 가족과 순천시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여, 공매를 통해 지난 2월에 부동산 매각 대금 3600만원 전액을 23년 전 체납세에 충당하였다.

순천시는 이 외에도 3명으로부터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여 지난해와 올해 압류재산 매각 대금 전액을 체납세에 충당하였고, 체납자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납세담보 제공자 중 최고령자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순천시와 24차례 만남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에 납세담보 설정에 동의하였고, 올 2월 시청을 방문하여 “IMF 부도로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순천시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순천시 징수와 관계자는 “이번 사례들은 아무리 오래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행정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면서, “오랜 기간 고통 받았을 시민에게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경찰, 암행순찰차량이용본격 관내 단속 실시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5일부터 여수시 관내 일원에서 전남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암행 순찰차량(전남경찰청 소속)을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암행순찰 단속이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띤 순찰차에 경광등, 사이렌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암행순찰 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최근 여수 관내 특정 지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여 과속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인단속과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대면단속을 병행, 과속운전·신호위반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및 예방하기 위함이다.

향후 여수경찰서는 지속적인 전남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여수시내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암행순찰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 영암소방,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화재진압훈련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자위소방대 중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등 재난상황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영암군청, 보건소, 경찰서 등의 여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차 위치 선정 및 출동로 확보 ▲다수 사상자 발생 시 구조·구급 대응 활동 ▲자위소방대 초기 화재진압 활동 및 인명 대피 유도 등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무각본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